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5.(일) 14:00 배포 2026. 11. 15.(일) 12:00

한국 주도로 9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협력 기반 마련

- 한국 등 9개국,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계기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공동 협력의향서 서명으로 협력 본격화
- 재경부-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 3자 양해각서 서명으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의 신뢰성 확보 기반 마련

재정경제부는 11월 14일 토요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Global Verified Carbon Market) 공동 협력 의향서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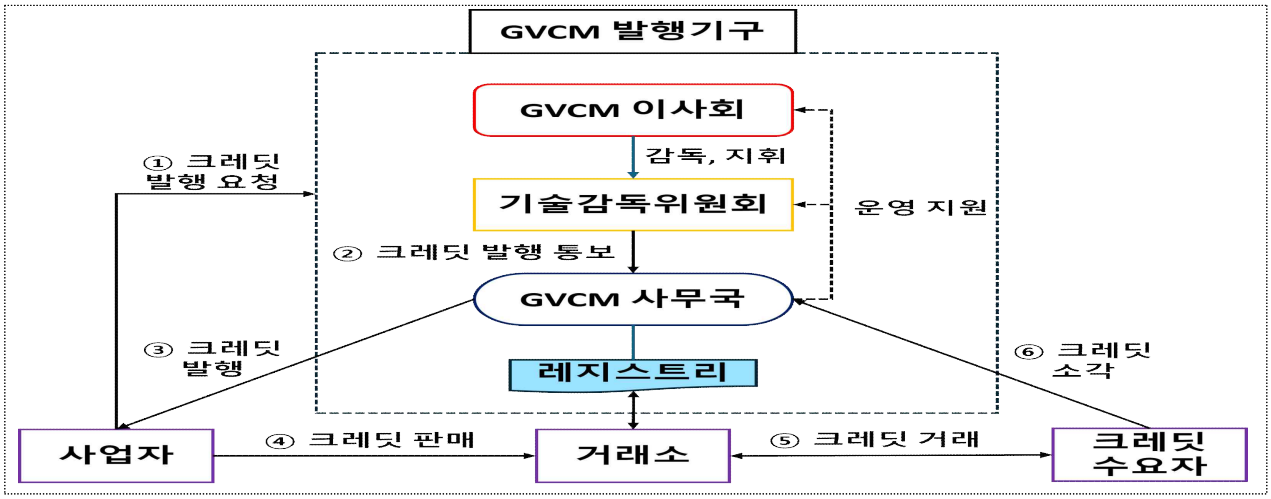
이번 서명은 재정경제부가 추진해 온 새로운 다자간(Plurilateral) 탄소시장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고, 신뢰성 높은 국제탄소시장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공동 협력 의향서 서명

재정경제부는 지난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한 뒤, 한국 포함 9개 참여 의향국을 확보하였다.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참여 의향을 밝힌 국가는 대한민국, 도미니카 공화국, 모로코, 부르키나 파소, 스리랑카, 싱가포르,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파라과이 총 9개 국가이다. 이들 국가들은 금일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공동 참여 의향서(Joint Statement of Intent)에 서명하였다.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은 여러 국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탄소 크레딧 발행 기준과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 크레딧을 창출하여 국제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러 국가가 공통의 기준과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사업 추진 부담을 줄이고, 탄소 크레딧 거래와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은 참여국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회원국 주도(Member-driven) 모델로 추진된다. 참여국들이 이사회 등을 통해 발행기구의 운영 방향과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행기구 거버넌스를 설계하였다.



이형일 부총리는 영상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은 “참여국의 다양한 경험과 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양자협력이 아니라 3개국 이상이 동시에 참여하는 새로운 다자(Plurilateral) 모델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라고 언급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서명에 참여한 국가들과 함께 2027년에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의 준비 및 운영을 진전시키기 위해 거버넌스, 운영 체계 및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 재정경제부-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 3자 양해각서 서명

한편 재정경제부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 Integrity Council for the Voluntary Carbon Market)와 함께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의 신뢰성과 품질 제고를 위한 3자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국제탄소시장 활성화의 핵심 과제인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서,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민간 기구로서, 탄소 크레딧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탄소원칙(CCPs, Core Carbon Principles)을 제시하는 국제 민간 기구이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3개 기관은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핵심탄소원칙*(CCPs) 관련 지식 공유,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참여국 대상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탄소 크레딧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가 제시한 10가지 원칙

이를 통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개도국 감축사업 지원 경험과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의 탄소 크레딧 품질 관련 전문성을 결합하여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의 신뢰성과 운영 역량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활성화와 탄소시장의 무결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라고 언급한 뒤, “이번 양해각서 서명을 계기로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의 품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2027년 중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발행기구 구축을 완료하고, 향후 더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 민간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도익 (044-215-8751)
		담당자	사무관	이수호 (suholee@korea.kr)

참고 ICVCM 개요

□ **(설립개요)** 2021년 설립된 **독립 비영리 민간 거버넌스 기구**로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 테스크포스*(TSVCM)의 논의를 바탕으로 출범

* 자발적 탄소시장의 규모 확대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민간 주도 협의체(`20.9월)

□ **(설립목적) 탄소크레딧 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 **탄소크레딧**이 실제적이고 검증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을 증빙할 수 있도록 **공통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 고품질 탄소크레딧 발행을 통해 **민간자금을 기후사업에 유치**하고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

□ **(구성)** 주주·회원국 및 자본금이 없는 보증유한회사

○ **(조직)** 산하 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의 지원을 받아 **운영이사회**가 방법론 등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 CEO가 이끄는 **사무국**이 집행

○ **(운영이사회 의장)** 애넷 나자레스**(Ms. Annette L Nazareth)***

* 미국 국적, 미국 변호사, 前 미국 증권위원회(SEC) 위원

○ **(CEO)** 에이미 메릴**(Ms. Amy Merill)***

* 영국 국적, 영국 변호사, 前 UNFCCC 선임 법률전문가

□ **(기능) 핵심탄소원칙(CCP)과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해 **탄소크레딧**이 실제 감축성과를 반영하는지 판단하는 **국제적인 기준** 제시

○ 영국·싱가포르 등의 지지를 바탕으로 ICVCM은 **자발적 탄소 크레딧의 품질을 판단**하는 **국제기준기관**으로 인정받는 추세